

근로정신대 피해 담은 연극 ‘봉선화’ 광주서 열린다



문화 브리핑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협약
작년 관객 900명 관람 대성황
“아픔 치유하고 평화 역할 최선”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의 피해를 다룬 연극 ‘봉선화’(감독 나카 토시오)가 빠르면 올해안에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재단 다목적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나고야 소송지원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은 연극 ‘봉선화’의 광주 공연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예술인·단체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은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초연한 ‘봉선화’는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아이치 현민의 손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연극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해 재연한 ‘봉선화 2022’는 840명의 관객이 찾아왔으며 온라인관객까지 총 900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1998년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로 설립 직후 1999년부터 20여년간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돕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등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29일 설립됐다.
황봉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극 ‘봉선화’를 무대에 올린 일본 시민운동 단체와 예



지난해 일본 나고야시 공연장에서 선보인 연극 ‘봉선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의 피해를 다룬 연극이다.

술인들의 노력은 문화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공감하고 대물림하는 일로, 문화재단이 함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아픔을 치유하며 진정한 평화의 미래를 향한 재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이인호 개인전 ‘결의 미학’=13~24일 북구 청 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휴관)
- ◇내 마음의 풍경전=13~24일 일곡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1·3주 휴관)
- ◇박은숙 개인전 ‘내 마음의 풍경소리’=13~24일 자미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일 휴관)
- ◇광주시립교향악단 ‘White Day’=14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
-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신인음악회=15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 ◇빛고을공예창작촌입주작가 상반기 단체전 ‘빛결전’=15일~4월 23일(오전 10시~오후 3시, 월 휴관)
- ◇홍정남 개인전=16~22일 무등갤러리(오전 10~6시)
- ◇조민정 피아노독주회=17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 ◇피아노 듀오콘서트=18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 ◇치유심리 드라마 공감=18일 오후 3시 동산아트홀
- ◇아시아의 인형극=18일까지 ACC 어린이 문화원 어린이 체험관
- ◇2023 남진 콘서트=18일 오후 2시·오후 6시 GS칼텍스 예술마루
-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무악회 ‘그린국악’=18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



어린이들이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아틀리에2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에 참여해 전시 중인 작품도안을 색칠해보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참여형 예술교육 확대

전남도립미술관이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한다.
12일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특화 교육’과 ‘전시 연계 교육’ 등 참여형 예술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어린이 특화 교육은 ‘어린이 책 속 예술 나라’를 주제로 열린다. 해외 예술가들의 책을 함께 감상하며 기본 조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예술 활동을 펼친다. 어린이 아틀리에1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6~7세와 8~10세로 1차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총 18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061-760-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ACC ‘전문인 콘텐츠 발굴’ 1년간 운영

23일까지 ‘맛보기 과정’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미래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과 기획 분야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시작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융복합·가상 콘텐츠 창작과 기획에 특화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ACC전문인 콘텐츠 발굴’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ACC는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콘텐츠 기획과 시연, 실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를 교육한다.
이를 위해 ACC는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 이론 교육(4~5월) ▲장비·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실습 교육(7~8월) ▲창작현장 참여 및 가상 콘텐츠 발표(9월부터) 등 총 3단계로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ACC 복합전시관과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연하는 교육을 추가했다. 단계별 교육 후 ACC의 창작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가상 콘텐츠로 자유롭게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단계로 구성했다.
개강에 앞서 이번 교육의 설명회인 ‘맛보기 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전문인 콘텐츠 발굴’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콘텐츠 발굴 교육과정. /ACC 제공
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의 소개와 함께 융복합·가상 콘텐츠 분야의 전망과 방향 등을 공유하는 전문가 초청 공개 특별강연도 개최한다.
오는 22일 정우진 자이언트스텝 이사의 ‘ACC 융복합 전시’ 지구의 시간 ‘으로 살펴보는 뉴미디어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와 23일 이해원 기어이 스튜디오 대표의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 가상과 현실이 이어지며 변화한 것들’ 강연이 이어진다.
‘맛보기 과정’은 오는 23일까지 총 10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최진화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8기 박물관대학 강좌 수강신청 선착순 80명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제 28기 박물관대학 강좌를 시작한다.
교육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좌는 ▲바다로 통하는 길-영산강의 대외교류 ▲영산강의 수운과 경관변화 ▲강을 따라 흐르는 설화와 전설 ▲소통의 공간, 영산강의 뱃길과 장시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를 마친 후 마지막 시간에는 경남 창원군 일대 낙동강의 문화유적 답사(참가비 별도)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대학의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17일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gjhm)를 통해 선착순 80명에 한해 접수 받는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